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총력

익산시, 민간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례 17건 적발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부터 민간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582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총 17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 편법중여 의심사례 2건 등이다.

시는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2건에 대해서는 5,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13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했다. 또한 편법중여로 의심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익산세무서에 통보했다.

시는 최근 전주시가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 세력들이 익산으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에서 통보된 실거래 위반 의심 자료, 부동산 거래가격 동향을 분석한 투기 예상 물건 등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일 제4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보고와 지난달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처분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조사 현황 보고와 지난달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 처분 사항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개방형으로 임명된 환경수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예산·법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비상임 감사위원까지 총 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익산시 부동산 투기 조사 현황 안전에 대해 감사 위원들은 공무원 뿐 아니라 선출직과 민간인에 대해

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공무원부터 민간 사례까지 철저히 조사해 불법 투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배달의 명수 100억 돌파 이벤트

군산 배달앱 출시 1년여만에 성과... 돌파일 맞추기 등 진행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한 군산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매출액 100억 원을 앞두고 '매출액 100억 돌파 기념 이벤트'를 추진한다.

지난 2020년 3월 13일 출시한 배달의 명수는 6일 현재 40만2,204건, 주문금액은 97억7,000여만원으로 출시 1년여 만에 10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00억 돌파일 맞추기, 한국 최초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 사인볼 도전, 돌파일 기념 너도나도 할인쿠폰 제공, 3가지로 진행된다.

100억 돌파일 맞추기는 12일부터 응모할 수 있으며, 돌파일을 맞추는 소비자 300명을 추첨해 1만원의 배달의 명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돌파일 당일에는 800명의 소비자에게 2,000원의 할인쿠폰을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군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역전환권을 날리자는 비전으로 추진한 배달의

명수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의 사인볼 10개를 응모를 통해 소비자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배달의 명수' 페이스북과 어플,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달려온 지난 1년여동안 배달의 명수를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시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지난 3월 (재)군산사회복지재단학회(이사장 김기봉)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달 받은 300만원으로 진행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

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

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애로 개선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먼저 시민이 주체가 되어 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의 속도감을 제고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 '음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親 기업 1인 2사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인·허가, 환경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시책을 추진 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 및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집중

익산시가 구직자와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스매칭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구직자들

위한 취업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참여 청년 33명 가운데 22명이 지역의 11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취업역량강화교육은 구직자뿐 아니라 광전자와 호식식품 등 지역의 4개 중소기업도 참여해 현장면접을 통한 맞춤형 인재를 채용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살리기

를 위한 윈스톱 미스매치 선제 대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직자들의 취업 희망사항을 조사한 후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사전 수요 조사로 구직자에게 직접 실무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전문교육, 중간 이미지 메이킹, 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을 소개하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시 집행부와 소통간담회 가저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최근 의정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특별위원장단, 오택립 부시장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사업 절차 진행에 있어 소통 부재로 인해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여 오택립 부시장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앞으로 시와 시의회의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고 각종 시정 및 의정 현안 사항을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안건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 절차 관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코로나19 위기 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계획 등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추진을 당부하였고, 집행부 관계자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힘쓰며 굼직한 현안 사업들을 의회와 함께 고민해 로드맵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집행부와 의 지속적인 간담회 추진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민원응대 직원 보호 통화연결음 송출

군산시가 민원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민원인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응대 직원 보호 통화연결음을 12일부터 송출한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화상담 증가와 더불어 욕설, 폭언 등의 악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로 시행된다.

통화연결음은 "서로가 존중하는 말로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성을 다해 들겠습니다"라는 멘트로 직원 보호조치 내용을 강조하면서 민원청취 의지를 부드럽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